

봉사정신 좀먹은 공직자 비리

아파트 부정당첨자 강력처벌 여론 양구군청 친절 대민서비스 '세상 살맛'

대만 핵폐기물 7월 북한행
 해상사고면 한반도 전해역 오염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이 빠르면 7월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주한 대만대표부와 그린피스 아시아지부 등과 접촉한 결과, 대만전력공사가 북한으로 보낼 핵발전소 폐기물의 첫 선적 작업은 7월중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국해양연구소 남수용 장정일 박사팀은 "대만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운반할 선박이 해상사고로 좌초해 핵폐기물이 유출될 경우 3개월내에 한반도 모든 해역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며, 5개월이면 중국과 일본 해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를 받아 클레이(CLAY) 수퍼컴퓨터에 동북아 일원의 10년간 해류 동향을 입력, "북극이 해류 확산모델"을 만들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남북사는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운송되는 도중 사고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핵물질 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을 간파해선 안 된다"며 "사고가능성이 1만분의 1이라 하더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동북아 전해역이 수백년간 죽음의 바다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문 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0년 이후 지난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핵물질을 운반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는 20여건에 달한다.

경기도 용인수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 3백38명의 부정당첨자 가운데 34명의 공직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위장 전입을 적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자신의 주소지에 외부인의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수법으로 위장전입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8일 용인수지구 아파트에 공직자 34명을 포함한 3백38가구가 위장전입해 부정당첨됐다고 밝히고 이들의 당첨취소와 해당 공직자의 인사조치를 용인시와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기 양주·고양시·수원 영통지구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용인수지구 아파트 부정당첨자 및 위장전입자 2천여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직자가 자칫 청렴성을 잃어버릴 경우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같은 점에서 위장전입 공직자와 위장전입을 방조한 공무원에게는 그 이상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 질서가 서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친절 한 자치단체로 선정된 양구군청 직원들의 대민서비스는 이번 사건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상조민원서비스반을 비롯 1년 내 내 벽지를 순회하며 농기계와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이동민원해결반도 군부대와 합동으로 운영,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무부는 10일 국정현안심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들의 대선행위 기준을 시달렸다. 회의에 앞서 단체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공공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린 아쇼카왕은 매우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관료들은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법을 지키는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벌,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아쇼카왕 석주석)

경북권 임영래총무국장은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범죄의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도 당첨취소와 함께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정감시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기차

"직위막론 법따라 업무수행"

공공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린 아쇼카왕은 매우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관료들은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법을 지키는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벌,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아쇼카왕 석주석)

경북권 임영래총무국장은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범죄의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도 당첨취소와 함께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정감시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지계

신도시주부 육아조합 추진

●...일산신도시 거주 주부들이 공동육아조합 결성에 나섰다. 조합발기인 30여명은 14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육아조합은 조합원들이 경비를 부담해 탁아 및 육아시설을 설립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도시지역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씨름선수 염원준씨 심장병돌기

●...프로씨름 염원준선수는 14일 남원에서 열리는 97남원장사대회부터 개인전 단체전을 포함, 1승을 거둘 때마다 1만원씩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기부키로 했다. 염선수는 11월 중순 그동안 모아진 금액을 한국심장재단에 1차로 전달할 계획이다.

빙그레-진주 인력교환 지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빙그레와 소시지 생산공장인 (주)진주는 최근 자사의 일용근로자 30여명을 필요한 시기에

금주

교육방송 교재·강사 비리

●...교육방송원(EBS) 간부들이 방송교재 출판자와 교재집필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6일 이와관련 출판업자로부터 8천여만원 받은 EBS 허만은 부인장을 비롯한 간부3명을 구속했다. 또 PD, 출판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적발

●...감사원은 10일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복지시설 33개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조금·기부금을 원장들이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경주시 모교아원등 8개 복지시설에서 원장과 총무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 1억6천만원을 횡령했다.

히로뽕 사범 하룻새 14명 검거

●...부산경찰청은 9일밤 히로뽕사범 단속에 나서 하룻새 14명을 검거했다. 부

과계

신도시주부 육아조합 추진

●...일산신도시 거주 주부들이 공동육아조합 결성에 나섰다. 조합발기인 30여명은 14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육아조합은 조합원들이 경비를 부담해 탁아 및 육아시설을 설립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도시지역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씨름선수 염원준씨 심장병돌기

●...프로씨름 염원준선수는 14일 남원에서 열리는 97남원장사대회부터 개인전 단체전을 포함, 1승을 거둘 때마다 1만원씩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기부키로 했다. 염선수는 11월 중순 그동안 모아진 금액을 한국심장재단에 1차로 전달할 계획이다.

빙그레-진주 인력교환 지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빙그레와 소시지 생산공장인 (주)진주는 최근 자사의 일용근로자 30여명을 필요한 시기에

과계

신도시주부 육아조합 추진

●...일산신도시 거주 주부들이 공동육아조합 결성에 나섰다. 조합발기인 30여명은 14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육아조합은 조합원들이 경비를 부담해 탁아 및 육아시설을 설립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도시지역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씨름선수 염원준씨 심장병돌기

●...프로씨름 염원준선수는 14일 남원에서 열리는 97남원장사대회부터 개인전 단체전을 포함, 1승을 거둘 때마다 1만원씩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기부키로 했다. 염선수는 11월 중순 그동안 모아진 금액을 한국심장재단에 1차로 전달할 계획이다.

빙그레-진주 인력교환 지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빙그레와 소시지 생산공장인 (주)진주는 최근 자사의 일용근로자 30여명을 필요한 시기에

세백이면 우리집에 우유배달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다. 자신의 남편이 안정된 모직장의 간부라고 해서 공급해준 나는 왜 우유배달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웬걸요. 자식들 한달 과외비가 우리집 한달 생활비보다 더 드는 걸요"하는 것이었다.

생활비보다 많은 과외비

과외열풍에 휩쓸리지 말라며 나는 그녀에게 나의 실상을 다소 교조적으로 말해주었다. 교육자인 남편은 하나 있는 외아들이 공부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자 기교자도 만들려 했으나 아이가 뒤늦게 스스로 깨달았음인지 그 혼란 과외한번 안하고 교육방송을 듣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다. 재수 끝에 서울 번두리 잘 안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지금도 과외를 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도 아이는 군말이 없다고 말했다.

우유배달 아주머니와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날이었던가. 교육부 산하 출연기관 한국교육방송원 간부들이 방송교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가 드러났다. 학원이나 학교의 일선교사들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 뇌물 받은 사람들이 속속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턱없이 턱 돈은 받은 교육자나 국민의 의식을 침단으로 끌며 자식을 가진 이땅의 부모들을 돈 안들게 하려고 방송을 한 방송 관계자들은 누구일까. 또 소꿉배에 거액의 돈을 넣어 건넨 사람들은 누구일까.

검은 돈 비자금모비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국민에게 다시 한번 추하고 처참한 꼴을 보여주는 꼴이다. 이런 때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막막하다는 말밖에 없다. 곧바로 나 혼자라는 의식이 오고 고독할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야 하고 다가올 세대에 대해 어울려 살아야 한다.

공공체로서의 이아기는 교육현장에서 부정한 돈을 먹은 교육자가 도덕교육을 시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처지이고 이윤배반적인가. 상상도 못할 엉뚱한 비리에서 비애감마저 든다.

교육열 제 일위의 나라에서 교육에 관한 한 요즘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교육대통령이니, 교육혁명이니, 교육백년대계니 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사

들을 늘어놓는다. 과외열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그 대안으로 나선 교육방송이 위성과의 말로 해서 공급해준 나는 왜 우유배달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웬걸요. 자식들 한달 과외비가 우리집 한달 생활비보다 더 드는 걸요"하는 것이었다.

교육비리 뿌리뽑는 기회

그곳뿐 아니라 모든 교육현장에서 비리라는 뿌리는 발본색원이 되도록 엄정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용 면에서 실제로 대학졸업생과 고졸생과의 임금 격차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교육비리 뿌리뽑는 기회

그곳뿐 아니라 모든 교육현장에서 비리라는 뿌리는 발본색원이 되도록 엄정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용 면에서 실제로 대학졸업생과 고졸생과의 임금 격차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노향림 (시인)

법륜사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 수행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연법에 달는 불자 및 년로하신 분과 고시 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 불경, 좌선 등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었고 삶에 지치고 사랑, 믿음, 자비, 분노, 열기, 슬픔, 인간사의 병든 마음과 육근을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수려한 민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대의 설계로서 욕망, 휴게실, 독서실 및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가족이 함께 심신을 맑게 하도록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다행히 지혜와 마음 거울을 닦아 성불합시다!

남·녀 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 제한 없습니다!	
방 1실 인원	1명	※ 小실	※ 小, 中, 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십시오.
방 1실 인원	2명	※ 中실	※ 小, 中, 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십시오.
방 1실 인원	3명	※ 大실	※ 小, 中, 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십시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선착순위	
문의처	본사) 합천 법륜사 : (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 : (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입양 접수일 : 1997년 5월 15 ~ 6월 31까지 (선착순 마감)

주 지 : 김운봉, 총무스님 : 손자혜
 고문 : 이기우
 회장 : 이경자 합장
 회주 : 최복남

"참사람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 참선 수행 법회

불기 2541년 제 1회 "참사람 수행결사" 수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차수	기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연령	대상
1차	7월21일(월)~25일(금) (4박 5일)	50명	6월20일~7월10일	19세~50세	일반인

1. 이름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주소) (우편번호)	4. 직업
5. 전화번호	(지역) (직장)	6. 종교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7. 수련법회 경험 유·무
 (수련법회 경험이 있으면년도, 수련법회 참가사찰명 기재)
 9. 참가하고자하는 이유(상세하게 기재)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 문의처 : 전 화 (0685)92-7502(오전7시~오후6시까지만 가능) FAX (0685)92-2081
 ■ 접수처 : (우)515-850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결사 수련원

대한불교조계종 제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지선